남북당국 대화·협력 복원 촉구

6·15 8주년 남측위 방북단 성명
정부 6명 방북 불허 유감 표명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방북단은 금강산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15일 성명을 내고 대화·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남측위 상임대표인 백낙청 단장은 출발성명에서 "민족이 주축이 돼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남북 당국이 역사의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6·15공동선언 8돌을 맞아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전망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만이 민족이 함께 사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번 대회가 남북 간에 조성된 일시적 장애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큰 길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남한 정부가 6명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정부가 1명의 초청장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한 인사에게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다시 방북을 막는 것은 정부의 기준이 갖는 자의성을 증명한다"면서 "일관성도 없는 이런 조치는 절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 6·15통일대회를 앞두고 북측에서 취한 여러 임의적 불허조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백 단장은 덧붙였다.

통일부는 방북을 신청한 260여 명 중 이적단체 구성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피보안관찰자 등 6명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북을 불허했고, 북한 당국은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비판적 논조를 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 기자 1명의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북단은 이재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7명이 빠지면서 총 258명으로 구성됐다.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도 이날 통일부의 6명 방북 불허조치를 "통일을 가로막는 행각"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

중국 남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푸젠성 장저우 시민들이 홍수에 뒤덮인 시가지를 배를 타고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지진 사망·실종 20명으로 늘어

도호쿠 규모 7.2 강진…200여명 부상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한 경찰과 자위대 합동의 대대적인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15일 오후 3시 현재 사망 9명, 실종 11명으로 인명 피해가 늘었다. NHK 방송의 자체 집계 결과 부상자도 233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모두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졌으며,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은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에 맞먹는 강한 진동으로 산사태의 규모는 컸으나 주택 등 건물 피해는 전파 1채를 포함해 총 12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사태로 떠밀려온 흙더미로 붕괴된 미야기(宮城)현 구리하라(栗原)시 고마노유 온천 여관에서는 이날 오후 투숙객과 종업원으로 보이는 3구의 사체가 발견됐다. 남은 4명에 대해서도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가운데는 구리하라의 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3명 가운데 2명은 숨진채 발견됐으나 나머지 한 명은 아직 흙더미에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14일 오전 구리하라의 계곡과 강으로 낚시를 떠났던 인근 주민 4명과 산나물을 뜯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50대 부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밖에 하나야마(花山) 온천에 관광온 노부부가 현수교가 무너지면서 강물로 빠져 실종됐다는 정보도 있어 경찰이 일대를 수색중이다.

부상자는 미야기현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근 이와테(岩手)현이 35명, 아키타(秋田)현이 17명, 후쿠시마(福島)현 2명, 야마가타(山形)현이 1명으로 총 233명으로 집계됐다.

방위성은 1천200명의 자위대원을 파견,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14일 오전 8시43분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 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진이 총 270회 잇달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1주일 안에 진도 6이 넘는 규모의 강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합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14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정례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일본 외무성 공관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3국 외교장관회담 정례화에 합의했다.

고무라 외상은 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차기 3국 외교장관회담은 중국 측이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교 당국자는 "3국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는 동북아 의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中 대홍수 이재민 1,800만명

남부 9개성 폭우… 62명 사망·실종

중국 남부지방을 휩쓸고 있는 폭우가 올해 초 폭설과 쓰촨성 지진에 이어 3번째 자연재앙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이후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광둥(廣東), 광시(廣西), 구이저우(貴州), 윈난(云南) 등 9개성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지금까지 1천787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55명이 사망, 7명이 실종됐으며 127만명이 안전한 곳으로 긴급대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오후 8시 광둥, 광시, 장시, 후난 등 4개성에 국가재난구조 3급 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중앙기상대는 하지만 15일부터 남부지방에 지난달말 이후 4번째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재난이 아직 끝이 아닌 상황이다. 현재 남방 대부분의 지역이 많은 비로 토질이 젖어있고 강과 댐 수위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비로 가장 타격이 컸던 광둥성에서는 17개 시와 60개 현에서 222만명이 수재를 입었으며 18명이 사망했다. 사오관(韶關), 마오밍(茂名), 양장(陽江)시에 특히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교통이 두절됐다.

광둥성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14일까지 평균 415㎜의 강우량을 기록, 평년에 비해 두배나 많았다. 강우량이 1천㎜를 넘어선 곳도 5개지역이나 됐고 424개 지역은 500㎜를 넘었다.

선전시는 50년만의 폭우를 만났다. 12일부터 24시간동안 400㎜의 폭우가 선전시를 뒤덮었고 도로유실, 주택, 공장 등의 침수피해가 잇따랐으며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초중학교와 유치원은 13일부터 휴교에 들어갔고 선전 공항 활주로에 물이 차올라 130편의 항공편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공장이 많이 입주해있는 둥관(東莞)에서는 32개 진(鎭)의 도로 모두가 물에 잠긴 가운데 둥관 기상국은 13일 오후 6시에 최고등급인 폭우 홍색경보를 발령하고 학교를 모두 휴교 조치했다.

광시성에서도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연일 비가 계속되면서 산사태로 인한 가옥붕괴 등으로 14명이 사망했다. 중앙기상국은 15일부터 17일까지 또 한차례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